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and parental practices
on children's social ability

전북과학대학 복지계열 아동복지전공

조교수 이진숙*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주거학전공

시간강사 한지현**

Dept. of welfare, Chonbuk Science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Lee, Jin-Sook

Dept. of Home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Han, Ji-h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and parental practices on children's social ability. The participants included 218 five year old children (116 boys, 102 girls). This study employed the 'Parent self-agent scale'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a modified version of 'child rearing practices report' (Block, 1981), and 'Preschool Sociaffective Profile' (LaFreniere, Dumas, Capuano & Dubeau, 1992). Parental efficacy and parental practices were evaluated by the mothers. The children's social ability was evaluated by both mothers and teacher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children's social ability was affected significantly by their gender. (2) The parental 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uthoritative parental practices. (3) Children's gender, mothers' parental efficacy, and authoritative parental practices affected children's social ability.

▲주요어(Key Words) : 부모효능감(parental efficacy), 양육 행동(parental practices), 사회적 능력(social ability)

1. 서 론

유아가 성장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에서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한 사회적 능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아의 사회적 특성의 제 영역을 이해하고 이후의 사회 심리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개념으로,

아동이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적응능력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개인적 목표를 획득하는 능력이다.

사회적 능력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 것으로, 학자들에 따라 환경에 대한 적응의 측면, 인성 구조적인 측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적응의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사회적 능력을 개인이 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사회적 문제해결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

* 주 저 자 : 이진숙 (E-mail : jslee0820@hanmail.net)

** 교신저자 : 한지현 (E-mail : narahan1217@hanmail.net)

고 정의한다(Krasner & Rebin, 1983; 전춘애, 2002 재인용). 또한 인성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은 다양한 인성구조 중에서 애정, 외향성, 접근성 등과 같은 긍정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사회적 능력이 있으며, 적대감, 복종, 내향성, 회피성 등과 같은 부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학자들은 사회적 능력을 대인 관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 중 또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Perry & Bussey, 1984). 즉 사회적 능력은 인간간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 주도하며, 타인의 사회적 표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상호호혜적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 행동을 얼마나 억제하는가 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이처럼 사회적 능력은 다양한 행동적, 인지적 특성 뿐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 적응 측면들로 구성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구성개념으로 개념화되어왔다(Merell, 1999).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획득하는데 유용하고 필수적일 뿐 아니라(Merell, 1999) 발달에 미치는 위협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기여할 수 있다(Chen, Liu, Li, Li, & Li, 2000). 또한 사회적 능력의 유무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높은 상관성이 있고(황혜정·김경희, 1999), 사회적 능력의 제 변인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협동적 또는 반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며, 사회적 발달을 설명하고 유아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줄 수 있다(이경희, 1993).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는 가족 관계의 질과 초기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아가 생식 가족에서 많은 사회적 유형을 배우며(MacDonald & Park, 1984), 생식 가족 경험이 또래간의 지위와 사회 기술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ettit, Dodge & Brown, 1988).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되며, 유아는 다양한 사회적 행동 양상을 가족에게서 배운다(Maccoby & Martin, 1983). 이처럼 유아의 초기 사회적 경험이 가족 환경 내에서 이루어짐을 볼 때, 초기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질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부모 자녀 관계 및 양육 관련 논문들은 부모의 온정, 귀납적 훈육과 일관성 등이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해왔다. 즉, 애정적이고 반응적이며 제한적이지 않은 양육 행동은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적 발달을 가져오며(Belsky, Rovine & Taylor, 1984),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처벌적인 부모행동은 유아의 분노, 공격성, 불순종 및 낮은 자존감, 사회적 위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nderville & Main, 1981; Patterson, 1980; 이진숙, 2001 재인용). Baumrind(1971, 1991)는 일

관성 있는 규칙을 적용하면서 온정적인 부모의 자녀는 거부적인 무관심한 부모의 자녀보다 또래에 의해 사회적으로 보다 잘 수용된다고 하였다. 자녀를 지도함에 있어서 온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확고한 행동기준을 요구하는 권위있는 부모의 자녀는 권위주의적이거나 허용적인 부모의 자녀보다 유능하고 자아지각 및 사회적 발달이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Perry와 Bussey(198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 때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들 역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해왔다. 애정적이면서 통제적인 양육 행동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높으며(이원영, 198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합리적일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경향이 높은 반면, 권위주의적일수록 친사회성이 낮고 공격성과 수줍음이 높다고 보고되었다(김지신, 1996). 김정아(199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취학전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합리적인 지도를 하고 한계를 정해주면서 일관성있게 행동할 때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사회적 활동성, 안정성, 협력성)이 높았다. 또한 박범실(1987)은 어머니가 합리적인 지도를 수행하고,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면서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재연(1992)은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아가 애정 요인의 양육행동을 많이 지각할수록 지도력 및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았으며, 권위주의적 통제 요인의 양육행동을 많이 지각할수록 불안정성이 높았다. 또한 조은영(1996)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성 점수가 높은 반면 강압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성 점수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여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련성을 지지하였다. 이처럼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양육 환경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의 안정성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Duncan과 McAuley(1993)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인지적 구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모역할 수행의 차원에서 볼 때 부모의 효능감은 부모로서 유능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말한다(Coleman & Karraker, 1997; Teti & Gelfand, 1991). 즉, 부모효능감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신념을 의미한다.

부모효능감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높은 부모효능감과 특수한 적응적인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지지한다. 많은 연구 자료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낸 Bugental 등의 연구에서는 낮은 부모효능감이 관계의 어려움, 부정적인 정서, 양육행동에 있어서 무력감, 강압적인 훈육의 사용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했다(Bugental, Bule, & Crusocosa, 1989; Bugental & Cortez, 1988). 다른 연구에서는(Parks & Smeriglio, 1986; Smeriglio &

Parks, 1983) 자녀의 특별한 발달적인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때 더 관여하고 자극을 준다고 밝혔으며, 부모효능감과 질 높은 양육과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양육 유능성 측면 간의 관련을 주장했다(Luster & Rhoades, 1993; Mash & Johnston, 1983; Swick, 1987; Teti & Gelfand, 1991). 최근에, 부모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 행동의 강한 직접적인 예측 요인이며 양육의 질의 매개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 Karraker, 1997). Crockenberg(1987)는 양육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이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칭찬한다면, 이러한 경험은 어머니의 내적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기술과 행동이 개선된다고 하였다. Belsky와 Vondra(1989)도 좋은 부부 관계는 부모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의 증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부모역할 기술이 좋아지게 한다고 하였다.

부모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희정(1983)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이것은 자녀의 효능감 발달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신숙재(1997)는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문혁준(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2~6세의 자녀에 대해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영(2001)은 양육효능감에 대해서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부모 역할에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며, 양육행동의 근원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보고, 양육효능감을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 평가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있어서 또한 성차를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결과 Baumrind와 Black(1967), Ford(1982), Galejs와 Stockdale(1982), Gesten(1976)은 사회적 능력의 하위 변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았다고 하였으며(최혜정, 2003 재인용), 이병립(1988)의 연구에도 여아의 능력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른 연구에도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수준이 높으며(Parke & Slaby, 1983; Kim, 1992; Page, 1998; 이진숙, 2001 재인용), 여아는 대인관계에서 보다 친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Cairns & Cains, 1993; Page, 1998; 이진숙, 2001 재인용)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반면에,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는 연구(박범실, 1987; 이혜영, 1986)들도 있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성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중자료, 다중

상황, 다중 방법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린 유아에게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이상적인 연구 디자인은 직접적인 행동관찰, 행동 평정 척도, 면접, 자기-보고 척도 등 다중 평가 방법을 포함한다. 그러나 취학전 유아의 경우, 자기-보고 척도와 유아와의 직접 면접은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린 유아의 경우, 사회적 능력의 평가는 주로 직접관찰, 부모·교사·양육자와의 면접 및 평정 척도에 의존해야 한다. 행동 관찰 및 부모·양육자 면접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성인에 의한 행동 평정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부모 평정법의 경우, 부모는 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에서 유아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유아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감정, 태도, 배우자와의 관계, 양육의 불안 등 유아의 능력과 무관한 다른 변인들이 부모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최경순, 1992).

다른 한 측면으로 교사에 의한 평정법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평가보다 더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Billman와 McDevitt(1980)의 연구에도 나타났듯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교사 평정 방법이 보다 더 신뢰로울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또한 Connolly와 Doyle(1981)는 교사 평정 척도와 또래에 의한 사회측정법을 실행한 결과 교사에 의한 평가가 높은 신뢰도를 보인 반면, 또래 평가는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전준애·이미숙, 2002 재인용).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어머니와 교사로 하여금 동시에 평가하도록 한 김정아(1990)는 어머니가 교사보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고 보고하면서, 교사 평정방법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에 의한 평정척도는 부모 평정보다 더 일관성 있고 더 신뢰로울 수도 있으나, 교사 한 사람이 다수 학생을 평정하게 되므로 아동 개개인에 대한 상세한 면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교사의 주관이나 성격 특성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 평가가 좌우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윤정진, 1997). 따라서 각 평가 방법들(또래, 교사, 부모, 행동관찰, 자기보고 방법 등)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가지 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이병립, 1988)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과정 상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한명의 평가자에게만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여왔다(노명희, 1995; 박응임, 1998; 백지은, 1998; 양외전, 1993; 이숙희·김숙령, 1996; 이진숙 2001; 조은영, 1996; 최정미, 2002; 홍계옥·최경순, 1996). 보다 객관적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보고를 활용하는 것은 의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가자로서 유아와 많은 시간을 상호작용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와 담임교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에게 동시에 평가하도록 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와같이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 평가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의 설명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도시 및 근교에 소재하고 있는 15개 보육시설의 만 5세 유아 218명(남아 116명, 여아 102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대상 유아와 부모의 특성은 <표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교사용과 어머니용이 있다.

1)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1996)가 개발한 'Parent Self-Agent Scale (PSAM)'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는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68에서 .7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척도를 약간 수정하여(5점 척도로 구성)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71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Block(1981)의 'Child Rearing Practices Report (CRPR)'을 Lin과 Fu(1989)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6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서, 민주적 양육 13문항과 권위주의적 양육 13문항으로 되어 있다. 민주적 양육은 독립심 격려, 애정의 표현, 합리적인 지도를 의미하며, 권위주의적 양육은 권위적인 통제, 감독, 불안의 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민주적 양육이 .71, 권위주의적 양육이 .6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0과 .61이었다.

<표 1> 연구대상

변인		변인 특성				
유아	성 별	남			여	
		116명 (53.2%)			102명(46.8%)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 이하
73명 (33.5%)		89명 (40.8%)		56명 (25.7%)		
모 연령		34세 미만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68명 (31.3%)	107명 (49.5%)	29명 (13.1%)	14명 (6.1%)		
부 연령	34세 미만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24명 (10.4%)	86명 (40.1%)	80명 (37.3%)	27명 (12.2%)		
부모특성	모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132명 (61.5%)		28명 (12.2%)		58명 (26.3%)
	부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91명 (42.0%)		26명 (11.3%)		101명 (46.7%)		
모 취업유무	취업			비취업		
	118명 (54.2%)			100명 (40.8%)		
부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단순노무직	기타	
	44명 (20.2%)	43명 (19.7%)	56명 (25.8%)	43명 (19.7%)	32명 (14.6%)	
가정의 총 수입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2명 (24.3%)	37명 (16.7%)	38명 (17.1%)	31명 (13.8%)	60명 (28.1%)	

3)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Freniere, Dumas, Capuano & Dubeau (1992)가 개발한 'Preschool Socio-affective Profile(PSP)'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사회적 유능성 10문항, 분노·공격성 10문항, 불안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사회적 유능성은 친사회적, 협동적 행동, 안정감, 자율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의미하며, 분노·공격성은 분노와 공격성 같은 외현화 문제 영역을, 또한 불안은 우울, 불안, 의존, 고립 등을 포함하는 내면화 문제 영역을 의미한다. 사회적 능력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사회적 유능성이 .81, 분노·공격성이 .77, 불안이 .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74, .72, .69이었으며,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1, .82, .8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먼저 J도시 시내 및 근교의 보육시설 중 각 기관장 및 교사, 부모의 동의 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체 총13개 기관의 15개 반(각 반당 유아수는 평균 13명-2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교사용 질문지 300부를 배포하여 233부가 회수되었고 어머니용 질문지 300부 중 235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질문지, 어머니용/교사용 질문지 모두가 확보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218쌍(어머니용, 교사용)이었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10.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성격은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평균 및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t-test,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효능감,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경향

1)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살펴본 결과, 부모효능감은 3.85이었으며, 양육행동 하위요인 중 민주적 양육행동은 4.08,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3.36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모취업유무, 총수입에 따라서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의 전반적인 경향

변 인		M (SD)	Range
부모효능감		3.85 (.52)	2.10-5.00
양육 행동	민주적 양육	4.08 (.49)	2.54-5.00
	권위주의적 양육	3.36 (.43)	2.31-4.54

2)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각각 평가되었으며 두 점수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Paired-t test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 영역 중 사회적 유능성과 분노·공격성에서 어머니 평가와 교사 평가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어머니가 교사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3.79, p<.001). 유아의 분노·공격성 점수에서도 어머니가 평가 점수가 교사 평가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4.45, p<.001). 또한 본 척도가 5점 평정 척도임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은 중간 점수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며 분노·공격성과 불안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3>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	모 평가	교사 평가	Paired-t
	M (SD)	M (SD)	
사회적 유능성	3.19 (.39)	3.04 (.48)	-3.79***
분노·공격성	2.04 (.42)	1.86 (.57)	-4.45***
불안	1.81 (.39)	1.80 (.51)	-.42

***p<.001

한편,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살펴본 결과, 모 평가와 교사 평가에서 사회적 유능성과 분노·공격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즉, 사회적 유능성은 여아의 평균이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여아가 남아보다 더 유능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노·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모의 교육, 모취업유무, 총수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	모 평가			교사 평가		
	남아	여아	t값	남아	여아	t값
	M(SD)	M(SD)		M(SD)	M(SD)	
사회적 유능성	3.06(.37)	3.33(.37)	-5.25***	2.94(.47)	3.15(.47)	-3.38**
분노·공격성	2.10(.38)	1.97(.44)	2.26*	1.96(.60)	1.75(.52)	2.73**
불안	1.83(.43)	1.79(.35)	.83	1.76(.49)	1.85(.53)	-1.13

* p<.05 ** p<.01 ***p<.001

2.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효능감과 민주적 양육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5, p<.001$). 즉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민주적 양육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효능감과 권위주의적 양육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양육행동	민주적 양육	권위주의적 양육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		.35***	-.02

*** p<.001

3.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앞의 연구문제 분석에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관련변인으로 유아의 성별, 부모효능감, 양육행동을 포함하여 이들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 실시 이전에 독립변인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어머니의 평가의 경우 여아일 때($r=-.34$),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r=.40$), 민주적 양육이 높을수록($r=.42$)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여아일 때($r=-.2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분노·공격성은 어머니 평가의 경우, 남아일 때($r=.15$), 부모효능감이 낮을수록($r=-.47$) 높아지며, 교사 평가의 경우 남아일 때($r=.18$)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불안은 어머니 평가에서는 부모효능감이 낮을수록($r=-.23$), 민주적 양육이 낮을수록($r=-.19$)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평가의 경우 권위주의적인 양육이 낮을수록($r=-.18$)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의 불안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교사간에 차이를 보였다.

<표 6>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연구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유아의 성별(남아=1)	--									
2. 부모효능감	-.12	--								
3. 민주적 양육	.03	.35***	--							
4. 권위주의적 양육	.02	-.02	.26***	--						
5. 사회적 유능성(모평가)	-.34***	.40***	.42***	.11	--					
6. 분노·공격성(모평가)	.15*	-.47***	-.11	.119	-.45	--				
7. 불안 (모평가)	.06	-.23**	-.19**	-.06	-.30***	.24***	--			
8. 사회적 유능성(교사평가)	-.22**	.07	.04	.07	.21**	-.17*	-.06	--		
9. 분노·공격성(교사평가)	.18**	-.05	-.02	.05	-.21**	.25***	-.12	-.65***	--	
10. 불안 (교사평가)	-.08	.20	-.08	-.18**	-.01	-.17*	.17*	-.32***	.14*	--

* p<.05 ** p<.01 ***p<.001

다음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표 8>과 같다. 앞서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수가 민주적 양육과 사회적 유능성간에 .42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다중공선성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사회적 능력은 각각의 하위 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 평가와 교사 평가에 따라 표를 따로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평가한 사회적 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적 유능성의 경우 성별, 부모효능감, 민주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능성 전체의 3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으며,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의 경우 민주적 양육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분노·공격성의 경우 부모 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전체의 2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의 경우도 부모 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전체의 6.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분노·공격성이 낮고 불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유아의 사회적 능력(모 평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사회적 능력	사회적 유능성		분노·공격성		불안	
	β	T값	β	T값	β	T값
성별 ^a	-.32	-5.69***	.096	1.58	.039	.58
부모효능감	.24	4.04***	-.462	-7.10***	.185	-2.56*
민주적 양육	.34	5.44***	.020	.31	-.119	-1.61
권위주의적 양육	.03	.51	.010	1.62	-.034	-.49
R ²	.349		.241		.069	
F값	28.31***		16.74***		3.93**	

^a 1=남아, 2=여아 * p<.05 ** p<.01 ***p<.001

한편,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경우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사회적 유능성에서 남아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5.7%였다. 분노·공격성의 경우도 성별만 영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아가 여아보다 분노·공격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설명력은 3%에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불안의 경우 유아의 성별 및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중요한 설명변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분노·공격성에서 성별만이 유의한 변인임이 밝혀

졌다.

<표 8> 유아의 사회적 능력(교사 평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사회적 능력	사회적 유능성		분노·공격성		불안	
	β	T값	β	T값	β	T값
성별	-.22	-3.30**	.180	2.66**	-.04	0.64
부모효능감	.04	.48	-.017	-.23	.23	3.25
민주적 양육	.02	.25	-.028	-.38	0.12	-1.69
권위주의적 양육	.07	.96	.052	.74	0.15	-2.14
R ²	.057		.037		.09	
F값	3.23*		2.03*		4.99	

^a 1=남아, 2=여아 * p<.10 * p<.05 ** p<.01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 5세 유아들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 영역 중 사회적 유능성과 분노·공격성에서 평가자 점수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분노·공격성에 대해서 어머니가 교사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어머니와 교사로 하여금 동시에 평가하도록 한 김정아(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어머니와 교사 간에 아동에 대한 인식 차이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유아를 평가하는 것과 교사의 입장에서 유아를 평가할 때 주관성이 개입됨으로 인해 실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아동과 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 Billman와 McDevitt(1980)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교사 평정 방법이 보다 더 신뢰로울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이유로는 유아가 어머니와 교사와 보내는 환경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아와 어머니는 대체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에 교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집단의 한 일원으로서 유아와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유아가 가정에서 보이는 사회적 인 능력과 사회 집단에서 보이는 사회적 능력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머니와 교사

모두 유아에게 중요한 환경이 되므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두 평가 자료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와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능력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아의 사회적 능력이 남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성차를 일관성있게 보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남아는 여아보다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수준이 높으며(Parke & Slaby, 1983; Kim, 1992; Page, 1998; 이진숙, 2001 재인용), 여아는 대인관계에서 보다 친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Cairns & Cains, 1993; Page, 1998; 이진숙, 2001 재인용)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 몇몇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의 성차의 원인으로 유아가 성에 따라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도현심, 1994; Cohn, 1991; Hyde, 1984). 즉,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나 교사가 아동에게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로 아동이 사회적 유능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박범실, 1987; 이혜영, 1986), 아동의 성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별로 축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 부모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관이 나타났는데, 민주적 양육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특별한 발달적인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때 더 관여하고 자극을 주며, 부모효능감과 질 높은 양육 및 지지적인 환경 간의 관련을 주장한 연구들(Luster & Rhoades, 1993; Mash & Johnston, 1983; Swick, 1987; Teti & Gelfand, 1991)과 일치해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민주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효능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력을 지닐 수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평가자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으며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또한 민주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분노·공격성과 불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서는 성별만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 뿐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낮았다.

어머니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영향력을 볼 때 성별, 부모효능감, 민주적 양육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부모효능감이 민주적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심리적인 변인인 부모효능감이 실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온정과 통제수준이 모두 높은 권위있는 양육방식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반면 지나

치게 통제적인 권위주의적 양육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Baumrind(1971, 1991)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 Hurlock (1978)은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사회화가 잘되고 명랑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였다(최정미, 2002 재인용). 본 연구결과는 지나친 통제나 감독을 하는 권위주의적인 양육이 자녀의 사회적 발달에 기능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동시에 일관성있는 적절한 지도가 함께 하는 온정적인 양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연령을 제외한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영향력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논의했듯이 어머니와 교사 두 평정자의 특징으로 인해 또는 가정과 기관의 환경 차이로 인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어머니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에는 관계를 보이지만,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가 평가한 부모효능감 및 양육행동과는 관련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교사가 지각하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또 다른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불안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적 양육은 어머니가 평가한 유아의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불안과는 권위주의적인 양육이 부적 상관을 보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애정적이고 반응적이며 제한적이지 않은 민주적 양육 행동은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적 발달을 가져오며(Belsky, et al., 1984),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처벌적인 부모행동은 유아의 분노, 공격성, 불순종 및 낮은 자존감, 사회적 위축과 관련이 있는 것 보고하여왔다(Londerville & Main, 1981; Patterson, 1980; 이진숙, 2001 재인용). 본 연구에서 권위주의적인 양육이 유아의 불안을 낮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가능한 가설로 우리나라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기능적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비교 문화적 연구에서도(이영환, 2001), 한국문화에서는 통제적인 양육방식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을 낮추는 긍정적 훈육의 기능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서만 이러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으며,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또한 민주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만을 살펴보았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부모변인 외에 교사나 또래의 관계와 관련된 변인들도 고려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의 이론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로분석을 통해 양육행동의 직접·간접적인 효과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 평가간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측정도구의 조작적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한다면, 훈련된 관찰자의 관찰이나 면접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으로써 유아의 성별,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의 설명력을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어머니 변인들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접수일 : 2004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4년 09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0월 30일

【참 고 문 헌】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아(199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치원에서의 유아의 적응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신(1996). **어머니 및 전통-근대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도현심(1994). **유치원 아동 및 6학년 아동의 사회적 능력: 부모의 관심, 보호성, 아동의 성 및 출생범주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이 자녀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

107.

박범실(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용임(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

백지은(1998).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재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과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의점(1993). **유아의 애착유형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 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 71-90.

윤정진(1997). **취학전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능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1993).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유아의 기질, 가정양육환경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병림(1988).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숙희·김숙령(199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87-100.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혜영(1986).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춘애·이미숙(2002). **보육시설의 구조적, 과정적 변인 및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15-124.

조은영(1996). **어머니의 아동양육 방식이 5세 아동의 애착 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1), 213-226.

최경순(1992). **아버지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정미(2002).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205-216.

최혜정(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계옥·최경순(1996). **유치원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01-116.

- 황혜정·김경희(1999).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학회지*, 20(3), 139-152.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y*, 4, 1-103.
- Belsky, J. & Vondra, J. (1989). Lessons from child abuse: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In D. Cicchetti & V. Carlson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G.(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III: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Block, J. H.(1981). *The Child-Rearing Practices Report (CRPR): A set of Q items for the description parental socialization attitudes and valu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 Bugental, D. B. & Cortez, V.(1988). Physiological reactivity to responsive and unresponsive children-As modified by perceived control. *Child Development*, 59, 686-693.
- Bugental, D. B., Bule, J. & Crusocosa, M.(1989).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outcomes : Implications for child ab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35-539.
- Chen, W., Liu, M., Li, D., Li, Z. & Li, B.(2000). Social and prosocial dimensions of competence in Chinese children: Common and unique contributions to social, acade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02-314.
- Cohn, L. D.(1991). Sex differences in the cours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2), 252-266.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56, 754-761.
- Crockenberg, S.(1987). Predictors and correlation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 964-97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 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Duncan, T. E. & McAuley, E.(1993). Social support and efficacy cognitions in exercise adherence: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6, 199-218.
- Eron, L. (1982). Paren-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in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37, 197-211.
- Freniere, P. J., Dumas, J. E., Capuano, F. & Dubeau, D.(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eschool Socio-affective Profile. *Psychological Assessment*, 4(4), 442-450.
- Hyde, J. S.(1984). How large are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A development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22-736.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i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Lin, G.-Y. C. & Fu, V. R.(1989). A comparison of child-rearing practices among Chinese, immigrant Chinese and Caucasian-American parents. *Child Development*, 61, 429-433.
- Luster, T. & Rhoades, K.(1993). The relation between child-rearing beliefs and the home environ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38, 317-322.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family: Parent 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1-102. N.Y.: Wiley.
- MacDonald, K. & Park, R. D.(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Mash, E. J. & Johnston, C.(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Merell, K. W. (1999).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seesee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ahwah, N. J. : Erlbaum Associates.
- Parks, P. L. & Smeriglio, V. L.(1986).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knowledge, quality of stimulation in the home and infant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35, 411-416.
-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 Prentice Hall.
- Pettit, G. S. & Butes, J. E. (1987).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from infancy to age 4 year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1988) Ear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9.
- Smeriglio, B. L. & Parks, P. L.(1983). Measuring mothers' perceptions about the influence of infant caregiving practice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3, 237-244.

Swick, K. J.(1987). Teacher reports in parental efficacy-involvement relationship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14, 125-132.

Teti, D.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